



한국의학물리학회 30년사 기념집 발간사

한 영이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사) 한국의학물리학회가 2020년 9월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의학물리학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회는 지난 역사의 연장선에 존재하며, 미래는 오늘을 바탕으로 나아감에 있어 학회의 최근 10년간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입니다.

20년사에 기록한 학회의 태동기, 성장기, 정착기, 도약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30년사에 포함하고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확장기’로 정의하고 기록하여 30년간의 역사를 아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학물리학회는 학회의 창립 이래 추진 해온 ‘의학물리사의 법제화’를 이루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유관 학회와 협조 하에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국내 교육기관의 인증이 시작되었으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의학물리전문인 제도의 다변화가 추진되었고 국내의 의학물리교육기관과 국내 전문인제도는 국제기관의 인증이 시행되어 의학물리의 교육, 수련, 자격 검증 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술 활동의 격상을 위해서 학술지를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영문학술지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고, 최신의 방사선 치료 및 4차 산업혁명 주제의 연구회가 발족하여 지속적인 기술보고서의 발간과 첨단 연구의 국내 교류의 활성화 및 연구회 중심의 국제적 교류 또한 촉진 되었습니다.

또한 학회는 법제화를 통한 임상의학물리사의 지위 확보 뿐만이 아니라 회원의 각직장에서의 권익보호에 학회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직장근무문화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명의 발기인으로 창립된 의학물리학회는 지난 30년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의학물리 국제학회 및 조직에서의 임원 활동 등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700명의 회원을 갖는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곳 30년사에 수록한 학회의 지난 활동과 학술 자료들이 지나온 역사를 조망하여 연구자로서 또 임상 현장의 전문인으로서의 의학물리사의 미래발전을 한국의학물리학회가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